



4면

전북학생의회 정기회

전주매일

2023년 9월 11일 월요일 (음 7월 27일) 제3344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총선공약·국책 발굴 '온 힘'

전북도, 1차 중간보고회 개최

공약 38건·국책 40건 1차 선정... 11조6805억원 규모

추가발굴·2차 보고·타당성 검토 등 거쳐 12월 확정

전북도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공약사업과 지역의 성장동력이 될 대형 국책사업 발굴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 8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제22대 총선공약 및 국책사업 발굴 1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실무위원, 전북연구원 연구본부장 연구위원 등 22명이 참석해 그간 발굴 사업에 대한 보고와 총선공약, 국책사업 향후 일정 등을 논의했다.

전북도는 지난 4월 전북연구원, 시군 출연기관 등으로 구성된 총선공약 및 국책사업 발굴 추진단을 구성하고 1차와 2차에 걸쳐 사업 아이템 발굴, 신산업·경제, 농생명, 문화·체육·관광, 동부권·새만금, 안전·환경, 복지·교육 등 6개 분야별 워크숍,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잠정 78건(총선 38건, 국책 40건)을 선정했다.

신산업·경제 분야에서는 미래 모빌리티 실증 기반 구축(총선 2,700억원), 전북 모태펀드 운용 전문가 설립(총선 1,000억원), 전북 벤처밸리 조성(국책 4,052억원), 첨단바이오소재 클러스터

터 구축(국책 755억원) 등 10개 사업(총선 4, 국책 6)을 발굴했다.

농생명 분야에서는 푸드테크 인증센터 설립(국책 500억원), 식품탄소저감 지원센터 구축(국책 500억원), K-Food 기반 마이크로바이옴 참조표준 DB 구축(국책 600억원), 바이오 첨단소재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국책 500억원) 등 8개 사업(국책 8)을 발굴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는 동부권 연계관광 개발 프로젝트(총선 1,350억원), Active Schools Active 전북(총선 1,500억원), 합파우 아트밸리 파빌리온 프로젝트(국책 3,000억원), 국립 후백제 역사 문화센터 건립(국책 450억원) 등 6개 사업(총선 3, 국책 3)을 발굴했다.

동부권·새만금 분야에서는 호남선 김제~정읍간 고속도로 확장(총선 5,585억원), 전주~김천 철도망 구축(총선 2,255,486억원), 스마트 김산읍 집적화 단지 조성(국책 800억원), 국도 4차로 신설(완주읍진~익산춘포, 국책 4,150억원) 등 23개 사업(총선 16, 국책 7)을 선정·발굴했다.

안전·환경 분야에서는 호남권 소방심사수련원 유치(총선), 진안고원 하늘숲 산악공원 조성(총선 1,500억원), 교동약자 보행 안전도시(J-City) 구축(국책 1,000억원), 만경강 열린 생태박물관 조성(국책 1,000억원) 등 15개 사업(총선 7, 국책 8)이 제시됐다.

복지·교육 분야에서는 전북권 산재전문병원 건립(총선 1,600억원)과 고령친화 사회서비스 산업복합단지 조성(국책 1만5,000억원), 전북도 진로교육원 설립(국책 1,500억원), 새만금 글로벌 외국인 교육 단지 조성(국책 1,000억원) 등 16개 사업(총선 8, 국책 8)이 발굴됐다.

노홍석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에 발굴된 핵심사업들을 정부정책과의 부합성, 당위성 등 논리를 마련하고 구체화 시켜 나가겠다"며 "전북 특자도의 성공적인 동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추가사업 발굴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올해 사업 발굴 방식을 종전 도·전북연·시군 추진단 중심이던 것을 확장해 정부와 도내 인적 인프라를 활용한 도내 정부출연기관 등 혁신기관과도 연계해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또한 이번에는 논의한 총선공약 및 국책사업에 대해 전문가 자문, 혁신기관 연계 사업 구체화 검토를 거쳐 2차 중간보고, 최종 보고 후 12월까지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이 공동 주최하고 (재)전북테크노파크가 주관하는 제17회 전라북도 과학축전 개막식이 지난 8일 전북어린이창의체험관 일원에서 열린 가운데, 김관영 도지사, 서거석 교육감,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 등 참석자들이 개막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이날 어린이창의체험관에서 열린 오프라인 행사는 10일까지 이어졌다.

'특별자치도의 미래 열다'

'전북과학축전' 오프라인 성료... 온라인 14일까지

지역 산업발전 기여 '전북과학기술인대상' 시상

104개 기관 등 참여 108개 전시·체험 콘텐츠 구성

내년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태어나는 전북의 미래를 열어가자 과학 기술의 대추진이 화려하게 펼쳐진다.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이 공동 주최하고 (재)전북테크노파크가 주관하는 '제17회 전라북도 과학축전'이 전북어린이창의체험관 일원과 과학축전 누리집(www.jbfoakr.com)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개최됐다.

이번 과학축전은 지난 8일 오후 3시 어린이창의체험관에서 김관영 도지사, 국주영은 도의장, 서거석 교육감, 도내 과학기술 관련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시작으로 14일까지 진행된다.

이날 개막식은 전라북도 과학축전 누리집에서 실시간으로 생중계됐으며 김관영 도지사, 서거석 교육감의 환영사, 국주영은 도의장의 축사, 제3회 전북과학기술인대상 시상, 개막 퍼포먼스, 과학 체험부스 투어 등 본격적인 축제의 장이 펼쳐졌다.

김관영 도지사는 "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처럼 과학기술은 상상을 일상으로 바꾸게 된다. 불가능한 도전을 성공으로 일구는 것이다"며 "우리 전북도 매일 매순간 4차산업 혁명의 핵심기술을 확보해 지역경제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도전한 결과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유치했

다. 또한 첨단기술이 집약된 방위산업 관련 기업들도 모여들어 있는 중이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과학축전을 통해 전북의 미래를 가꾸어 나갈 과학꿈나무들이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갖게 되고 꿈을 키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번 전북과학축전은 사회의 변화와 우리의 미래 모습을 담아내고자 노력했다. 메타버스 속 세상을 경험하고, 자율주행, 로봇, 인공지능(AI), 드론 코딩 등의 체험을 통해 청소년들이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갖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는 이번 과학축전을 통해 지역의 과학기술 발전에 많은 노력과 업적을 세운 제3회 전라북도 과학기술인대상 수상자들을 시상했다.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등을 통해 도내 기업의 성장지원과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한 △이성원 (주)이코랩 대표, △김진상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장 △정병영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 연구소장 등 3명에게 메달과 상패가 수여됐다.

올해 과학축전에는 체험중심의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했다. 지난해와 같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병행한 가운

데, 오프라인 체험부스를 기존의 56개에서 77개로 늘리고, 체험키트를 사전에 배부하고 누리집을 통해 가정에서도 체험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지난해 호평을 받았던 찾아오는 과학축전을 동부권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운영하기로 하고 모두 40개교 3,700여 학생들에게 과학축전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과학문화 확산과 격차 해소에 나섰다.

제17회 과학축전은 총 104개 연구소, 기관, 학교 등이 참여해 108개(온라인 31개, 오프라인 77개) 전시 및 체험 콘텐츠를 구성했다.

오프라인은 어린이창의체험관에서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열렸으며, 온라인은 과학축전 누리집(www.jbfoakr.com)을 통해 오는 14일까지 7일간 개최된다.

오프라인 프로그램은 전북의 미래를 열어가자 이차전지와 그린모빌리티, 스마트농생명, 탄소융복합소재, 재생에너지 등의 전시관 등 77개의 체험부스로 구성돼 관람객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온라인 체험관에는 과학·소프트웨어(SW)교육·특별 체험관 프로그램 등 31개 세부 콘텐츠가 준비돼 유치원생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에서 놀이를 겸한 과학교육의 한마당이 될 전망이다.

과학축전 누리집은 전북미래전략관을 3차원(3D)으로 구축해,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산업을 현실감 있게 체험할 수 있으며, 전북 과학기술 산업의 현주소와 미래를 쉽고 재밌게 이해하도록 꾸며졌다.

/김재훈 기자

프리미엄 웨스턴 카페 카페올리브가든

아라비카 원두 맛과 향에 취하다

카페올리브가든은 이탈리아를 포함한 유럽, 미국, 호주 등 해외 현지에서 생산된 제품을 국내시장에 수입판매하는 종합상사가 운영하는 프리미엄 웨스턴 카페로서 영국 왕실의 스콘,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포르피도, 러시아의 라프와 홍차, 미국의 정통 치즈케익 등 독특하고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브라질, 콜롬비아, 과테말라 등 남미의 고산지대에서 재배된 고품질 아라비카 원두만을 블렌딩 해 제조한 카페올리브가든의 에스프레소 음료는 이미 지역사회에서 그 맛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카페올리브가든은 마셸린 3 스타를 받으며 세계적 명성을 얻은 이탈리아 대표 셰프 **마시모 보투라 (Masimo Botura)의 자체 브랜드인 빌라 마노도리 (Villa Manodori) 올리브오일과 발사믹을 판매하고 있으며, 일부 음료제조 및 디저트류 베이킹에 올리브오일을 원재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페올리브가든은 전주신시가지 전주상공회의소 건물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중무휴로 운영됩니다.

- 평일 월~금 오전 9시 ~ 오후 10시
- 주말 토~일 오후 12시 ~ 오후 9시
- 법정공휴일 오후 12시 ~ 오후 9시

전북 서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절차 완료

인증 확정일 기준 2027년 5월까지 4년간 운영 자격 유지

도, 고창·부안군과 재인증 획득·지속가능 발전 기여 노력

지난 5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된 전북 서해안의 인증서가 유네스코로부터 공식 전달됨에 따라 2017년 9월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시작으로 6년 동안 추진해왔던 세계지질공원 인증 절차가 공식 완료됐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모로코 마라케시 일원에서 개최된 제10차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총회 폐회식에서 전북 서해안을 비롯한 전 세계 18개 신규 공원의 인증서 수여식이 열리고 있다.

수여식에는 전북도 행정부지사와 고창군수, 부안군수 등이 참석했고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CGN)의 장(니콜라스 조로스, 그리스)으로부터 인증서를 수여 받았다.

유네스코의 관련 규정에 따라 2027년 5월까지(인증 확정일 기준) 4년 동안의 세계지질공원 운영 자격이 유지되며, 2026년 재인증 신청과 2027년 상반기 현장실사 등을 거쳐, 향후 4년 동안 운영 자격이 재부여된다.

이에 전북도와 고창군·부안군은 4년 주기의 성공적인 재인증 획득은 물론 유네스코 브랜드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북 서해안이 우리나라 5번째 세계지질공원이자 국내 최초 '해안형 세계지질공원'이라는 특성을 적극 반영해 국내·외 탐방객 방문 활성화를 위한 신규 탐방 프로그램 개발·운영과 세계지질공원 방문자 센

터 조성 등의 대규모 국가예산 사업 발굴 등을 적극 추진하고, 체류인구 유입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경제적 효과 창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체류형 힐링 탐방 기반 조성 등과 연계한 신규 사업 발굴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인증 당시 권고사항인 지질공원 선진 운영 사례 도입 등을 위한 활발한 국제교류 활동 등에도 지속 노력해, 전북 서해안 생태지원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동시에 해외 세계지질공원 정기 교류 등의 협력 체계 구축과 국제 학술행사 유치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임상규 행정부지사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브랜드의 현명한 활용으로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과 서해안 생태관광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사업 발굴과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